관광자원 vs 애물단지…은행나무 벌목 논란

장성읍 성산마을 가로수길 130 그루 벌목 앞두고 갈등
“주변 건물 균열 제거 불가피”
“일방 의견 듣고 성급한 결정”

지난해 11월 촬영한 장성군 장성읍 성산마을의 은행나무길 모습. 장성군은 나무 뿌리로 인한 인근 건물 균열, 열매 악취를 이유로 오는 3월부터 벌목하기로 결정하며 반발을 사고 있다. 〈독자 제공〉

‘옐로우 시티’를 표방한 장성군이 가을이면 노랗게 물드는 장성읍 성산리 일대 은행나무길을 없애기로 해 논란이 거세다.

군과 일부 주민 및 상인 등은 은행열매 악취와 뿌리로 인한 주변 건물 균열 등을 벌목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지역 문화·관광 유산인 은행나무길을 보존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장성읍 성산마을 은행나무 가로수길(600m)의 50년생 은행나무 130여 그루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성산 은행나무 공론화 군민참여단’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 구간은 50여년 전 성산리 주민들이 광주~장성~서울을 잇는 국도 1호선 주위에 자발적으로 은행나무를 심어 조성한 단풍 길이다. 도로명 또한 ‘단풍로’다. 가을이면 백양사·내장산을 찾는 행락객이 이곳에서부터 단풍 정취를 느낄 수 있어 관광명소로 꼽힌다.

하지만 인근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열매 악취와 함께 수령이 50년이 된 은행나무의 뿌리가 보도블록은 물론 인근 상가 건물과 담장까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그동안 장성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은행나무 가로수길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은행나무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온라인 설문 결과, 기관장·주민 등 29명이 참여한 군민참여단의 투표 결과 등을 종합해 벌목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주민과 조경전문가들은 자연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성급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도심에서 은행나무가 사라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높은데다 시골마을과 어우러진 은행나무 풍경은 현재는 물론 향후 남도의 명품 가로수길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문화관광 자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성에서 50년 이상 거주했다는 주민 김모(52)씨는 “성산리는 아직도 토담길과 아름드리 나무길이 즐비한 만큼 은행나무 가로수를 지역 향토자원으로 발전시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귀촌한 이모(50)씨도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낙엽 때문에 반대했지만 지금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됐다”며 “군이 벌목 찬성측 의견만 들었다. 모든 도시가 나무와 자연보호에 힘쓰는데, 장성에서만 없애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불가피하게 은행나무 뿌리로 인한 피해는 인센티브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소하고, 경관과 문화적 가치를 높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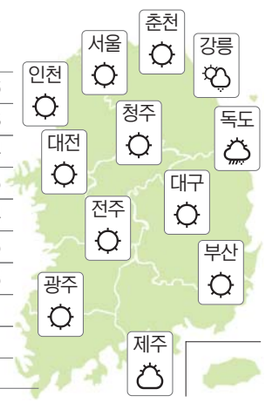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7:37	달뜸	22:37
해짐	17:53	달짐	10:31

바람 강해 추워요

가끔 구름 많고 오후부터 서해안에 눈 날리는 곳 있겠다.

광 주	맑음	-3/6	보 성	맑음	-3/6
목 포	구름많음	-1/5	순 천	맑음	-1/8
여 수	맑음	1/7	영 광	구름많음	-4/4
나 주	맑음	-6/6	진 도	구름많음	-1/5
완 도	구름많음	1/7	전 주	맑음	-4/4
구 례	맑음	-4/6	군 산	맑음	-4/5
강 진	구름많음	-3/7	남 원	맑음	-6/5
해 남	구름많음	-4/6	흑산도	구름많음	3/6
장 성	맑음	-5/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1.0~3.0
	먼바다	북~북동	1.0~2.0	북서~북	2.0~4.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5
	먼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1.0~2.5
	먼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2.0~3.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12	05:02
	22:45	17:39
여수	05:48	12:17
	18:18	--:--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미세먼지	보통

◇주간 날씨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2/1(금)
-4/4	-5/7	0/7	-3/8	-2/8	1/7	-1/5

6개월 정기점검 영광 한빛원전 2호기 가동 2일만에 증기발생기 이상 가동 중단

정비를 마치고 가동에 들어갔던 영광 한빛원전 2호기가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상 신호로 갑자기 멈춰 섰다.

6개월 간 정기점검을 벌이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원자로를 돌린 지 불과 2일만에 중단됐다는 점에서 원전사업자의 정비는 물론 규제기관의 가동 전 검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께 한빛 2호기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했다.

정상 가동을 위해 출력을 높이던 중 원자로가 갑자기 정지했다. 원자로 가동 중단은 2호기가 보유한 3개의 증기발생기 가운데 2곳에서 잇따라 이상신호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A증기발생기에서 12시 13분께 고수위 경보가 발생해 터빈이 멈췄고 10분여 뒤 C증기발생기에서는 저수위 경보가 울리면서 원자로를 갑작스럽게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빛원전의 안전을 감시하는 민·관기구인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관계자는 “증기발생기 내부 수위가 낮은 상태에서 원자로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이 흐르는 세관이 계속 열을 받게 되면 균열 등 각종 사고 가능성도 있다”며 “잇따라 수위 경보가 나오자 사전 입력된 안전시스템이 작동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원전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출력 시험 등 안전 점검을 거쳐 재가동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한빛원전 6기 가운데 절반(2·5·6호기)이 정비를 위해 멈춰 서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침 한방울 검사로 치매 95% 예측해낸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 새 검사법 개발 특허등록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새로운 진단법을 개발했다. 진단 검사도 구강상피 채취만으로 가능할 정도로 간단하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24일 “치매를 유발하는 APOE 유전자의 특징을 판별해 각 개인이 치매에 걸릴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는 검사법을 개발해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치매국책연구단은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인자로 알려진 아포이(APOE) e4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의 치매 발병률을 2.5배 이상 높이는 새로운 유전자변이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의 60% 이상이 이번에 밝혀낸 유전변이를 갖고 있어 동아시아인이 아포이(APOE) 유전변이에 의한 치매 발병위험도가 서양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단은 한국인 1만8000여명, 일본인 2000여명, 미국인 2만2000여명의 유전체와 MRI 뇌영상 분석을 통해 이같은 연구 성과를 거뒀다.

연구단에 따르면 아포이(APOE) 유전자변이가 치매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일선 병원에서 치매위험도 검사에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발병위험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심해 치매 발병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구단은 아포이(APOE) e4 유전자형인 사람이 이번에 새롭게 찾은 유전변이를 가지고 있을 경우 95% 이상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4만여 명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강세포를 채취해 DNA를 검사하면 아포이(APOE) 유전자의 특정 부위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아포이(APOE) 유전자형을 파악해 구체적인 수치로 치매 위험도를 알 수 있게 된다. 검사자 개인에게 ‘당신의 치매 위험도는 45%’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치매국책연구단은 이번 특허 내용을 상반기 중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 특허출원을 낼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5·18단체 “옛 광주교도소 부지 민주인권파크 반드시 조성돼야”

5월단체들이 옛 광주교도소에는 반드시 ‘민주인권기념파크’가 조성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4일 5·18민주화운동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첨단물류·e커머스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옛 광주교도소에 대해 “5·18 사적지로 지정됐을 뿐 아니라 이미 광주시에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광주의 민주·인권·평화의 역사 흔적 지우기를 시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즉각 철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모든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NAVER 블로그 에서 구독하세요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 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